

# 정부, 볼리비아 리튬 개발 가속화

## 기술협력 수준과 참여범위 최종 검토 ... 휴대폰·EV 2차전지용 호조

정부가 볼리비아와 리튬 개발협정을 체결해 일본, 프랑스와의 확보전에서 한 발 앞서가게 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8월26일 청와대에서 후안 에보 모랄레스 아이마 볼리비아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열고 자원개발과 통상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리튬 등 광물자원 분야에서 국내기업의 투자 진출을 위한 볼리비아 정부의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국 정부는 리튬 개발 합의서에 포함될 기술협력 수준과 참여 범위를 놓고 최종문구를 협의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2009년 8월 볼리비아 과학위원회와 리튬개발 및 산업화 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리튬 개발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009년 9월과 10월에 이어 2010년 1월에도 볼리비아를 방문해 리튬 개발에 대한 논의를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볼리비아 서부의 우유니 호수에는 세계 리튬 부존량의 약 50%에 달하는 540만톤이 매장돼 있으며, 자원 개발권을 놓고 한국과 일본, 프랑스, 브라질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리튬은 휴대폰과 노트북 컴퓨터, 전기자동차(EV) 등의 2차전지 제조용으로 사용되며 앞으로 수요가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볼리비아 정상으로서는 처음 방한하는 모랄레스 대통령은 8월 25-27일 LG화학 연구소 및 공장을 방문해 첨단 리튬이온전지 생산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8/20>